서구에 불교는 어떻게 전래됐나

동국대 불교사회硏, '서구로 간 붓다' 학술대회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최초의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8세기 초엽까지 부처는 인도의 많은 신 중 하나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구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식민지화 시키면서 불교는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불교가 서구에 어떻게 전래되고 변용됐는지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김성철)과 인문학연구소(소장 박용희)는 12월 6일 교내 원효관 4층서 '서구로 간 붓다 - 서구의 불교 수용과 변용' 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등에서 불교가 어떻게 수용됐고 변용됐는지를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또한 톨스토이와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세계에 어떻게 불교를 투영했는지를 살펴 눈길을 끌었다.

장영숙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러시아 불교-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과 이해' 에서 러시아의 대표적 문호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과정과 이해를 분석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톨스토이가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후반 그에게 '정신적 위기' 가 찾아오면서 부터다. 톨스토이는 '바닥까지 추락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치열한 자아 탐색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졌고 동 · 서양 현자에게서 그 답을 찾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톨스토이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당시 톨스토이는 마냐예프와 같은 러시아 인도학 학자들과 교류하며 불교사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며 "톨스토이의 불교 수용은 종교적 차원보다 사회 윤리적 · 존재론적 대안 찾기에 가깝다. 그에게 불교사상은 서구 종교에서 찾지 못한 방향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현자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톨스토이가 주창한 '비폭력 무저항' 이라는 평화주의 사상도 불교에 기반하고 있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인간을 넘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은 불교의 핵심 요소인 불살생의 모습"이라며 "윤회 사상은 톨스토이의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의 시원이며, 업보와 함께 함께 톨스토이가 지향하는 도덕적 윤리적 삶의 주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톨스토이


바그너

서구 불교 수용 · 변용 조명해
각 국가 불교학 추이 연구도
톨스토이 · 바그너 작품 세계서
불교 어떻게 투영됐는지 살펴

김희영 대구 한의대 교수는 '바그너 음악의 불교수용' 을 통해 독일 음악가인 바그너의 작품 세계 안에 불교가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살폈다.

김 교수는 바그너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기 전부터 이미 동양 사상과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전제했다. "기독교가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제도화된 종교로 변질됐다"고 바그너는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교가 가장 완전한 형식으로 종교적 본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 봤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바그너는 불교의 해탈의 이념이 서구 물질문명의 해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약속으로 봤고, 그 가능성을 윤회의 원리서 찾았다"면서 "바그너는 스스로 발견한 불교의 주요 사상들을 통해 인간의 '내적 구원' 기획을 위한 예술적 열정과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바그너의 이해는 그의 음악극이 지니는 구원의 메세지를 위한 상호보완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그너에 있어 기족의 기독교적 '구원' 개념은 불교의 '출가' 나 '해탈' 개념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철호 경남과기대 교수의 '빅토리아시기 영국 불교학과 의미' △이경일 경성대 교수의 '프랑스에서의 불교연구' △박용희 동국대 교수의 '독일에서의 불교연구' △김주관 동국대 교수의 '미국불교의 전래와 확산'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초기불교 · 한문 강독… 공부 삼매 빠져 볼까

올 겨울 눈길 끄는 불교계 강의 2選

추위로 온 몸이 움츠려는 계절, 불교 관련 공부로 이겨내 보는 것은 어떨까.

남원 실상사는 오는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실상사겨울학림' 을 개최한다.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 을 주제로 열리는 겨울학림에는 강사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참여한다. 교재로는 초기불전연구원이 펴낸 〈초기불교입문〉이 활용된다.

접수는 실상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동참금은 30만원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회원은 20% 할인된다.

이번 겨울학림에 대해 실상사는 "불교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佛)의 가르침(敎)' 이며 석가모니 부처님과 직계제자들의 가르침을 초기불교라 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정리돼 잘 전승되어오는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공부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063)636-3031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呑虛講塾)' 은 겨울방학을 맞아 선시(禪詩)와 선가귀감(禪家龜鑑) 특강을 진행한다.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진행하는 '선시' 강의는 내년 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탄허강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선가귀감' 강의는 동국대 박사인 선암 스님이 강의하며,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에 열린다.

이번 특강접수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뤄지며, 수강인원은 25~30명 선착순 마감한다. 특강료는 강의비와 교재비

실상사, 1월 겨울학림 열어
탄허강숙, 방학 특강 진행

포함 7만원이다.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된다.

이번 강좌에 대해 탄허강숙은 "겨울방학 특강으로 중국 · 한국의 대표적인 '선시' 와 서산대사의 '선가귀감' 을 강의한다. 선시 강의 첫날에는 이상하 교수의 '주자(朱子)의 불교비판' 에 대한 특강도 진행될 것"이라며 "고금(古今)의 지성(知性)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만큼 불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02)732-2403~4 신성민 기자

불교평론 새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교수



불교계를 대표하는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의 새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불교평론〉은 "제5대 편집위원장에 박병기 교수를 선임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박 교수는 내년 봄호부터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며, 2년 동안 〈불교평론〉의 편집과 제작을 이끌게 된다.

박 교수는 서울대 윤리교육과와 동대학원에서 윤리학과 도덕교육학을 전공했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 불교철학과 계율을 공부한 학자로 오랫동안 〈불교평론〉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으로서 2015 초 · 중 · 고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총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양 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의미의 시대와 불교윤리〉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증평군 불교유적 활용 나선다

12월 8일 증평군청서 학술대회

증평군이 관내 불교유적 활용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증평군은 12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불교유적 활용방안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증평군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증평읍 남하리에 위치한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을 중심으로 증평군의 여러 불교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에 대한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춘실(충북대학교 교수),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정제규(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류호철(안양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한 증평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주요한 요충지였음이 새롭게 조명됐다.

신성민 기자

"불교, 새로운 가족관 정립에 도움"

불교여성연구소 창립 6주년 토론회

붓다, 가족 간 평등 강조
現 가족 유연성 수용해야



불교여성연구소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하다' 를 주제로 창립 6주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탈가족시대,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조은수)는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탈가족시대의 가족을 말하다' 를 주제로 창립 6주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현재 탈가족 현상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전영숙 연세대 중국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불경을 통해 살펴본 도반으로서의 가족' 에서 불교는 가족에 대한 자비심과 성평등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불교가 출세간을 지향하고 남녀차별을 부추기는 등 가족관에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경전을 살펴보년 불교야 말로 가족에 대한 자비심과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붓다 스스로도 출가 전 가족 구성원이었고, 성도 후 승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이 가정이었다. 승가공동체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족공동체를 참고해 조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의 자비심과 제도의 의지는 가족애로부터 출발한다"면서 "좁게는 현생의 가족부터 넓게는 윤회 안에서 모두가 내 가족이 아님이 없다는 자비심으로 확대된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자연스럽게 재조정 ·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족의 친밀성 변화와 불교적 가치관의 검토' 를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족 변화 현상을 진단했다.

박 실장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유연성은 생애 과정을 기획하는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며 " '사랑하되 구속하지 않는 개인 중심의 가족' 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가족 질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의 가족관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구속적이지 않는 친밀성을 제공한다"며 "한국불교도 교리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현 사회의 가족 유연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와 불교적 대응방안' 을 발표한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은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웃과 큰 불자가족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불전부·아함부·반야부
법화부·화엄부·정토부

붓다의 가르침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동산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9일 (화) 부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불교 원전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을 강의했으며, 팔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원전 번역과 학술적 연구에 매진하며 활발한 저술활동에 힘쓰고 있는 최봉수 교수를 모시고 〈범본 한글 옮김 근본 육부 경전 정선 "붓다의 가르침"〉을 교재로 하여 경전 강독 법회를 엽니다.

불전부·아함부·반야부·법화부·화엄부·정토부의 순서로 진행될 육부 경전 정선본은 벵고 고익진 교수님께서 정선하시고 최봉수 교수님이 번역했습니다. 이 정선본의 강독은 매년 32강씩 6년에 걸쳐 이어질 계획이니, 많은 불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개 강 2018년 1월 9일(화) 오후 7시
• 제 1강 – 오후 7시
• 제 2강 – 오후 8시 20분
장 소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강 의 최봉수 교수
내 용 1부 불전부(부처님 생애편) 32강
• 2018년 1월, 2월 (16강) : 수행성불, 교화열반
2부 아함부 (2년차 – 32강) : 십이처 · 십업설법문 등 사대법문
3부 반야부 (3년차 – 32강) : 금강경, 팔천송 초품 · 강가데비품, 반야심경
4부 법화부 (4년차 – 32강) : 법화경 서품, 방편품, 비유품, 수기품
5부 화엄부 (5년차 – 32강) : 서분초지, 아함오지, 반야이지, 법화이지
6부 정토부 (6년차 – 32강) : 극락장엄경 소본일사, 광본삼사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800W 파워드믹싱 앰프」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예쁜 마이크형 목걸이 증정 "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